

연구논문1

#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0년 전망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0년 전망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목차

---

- I. 머리말
  
  - II. 대북제재와 북중무역 변화
    -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2. 북중무역의 변화
  
  - III. 2019년 북한의 경제정책
    - 1. 자력갱생 강화
    - 2. 대외관계 개선 및 경험 확대
  
  - IV. 2019년 북한경제 평가
    - 1. 과학기술
    - 2. 산업
    - 3. 식량가격과 환율
  
  - V. 2020년 북한경제 전망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DB산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 요약

본고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2019년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북한경제를 전망해 보았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 둘째,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가? 셋째,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유엔의 대북제재와 이에 따른 북중무역 변화를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16년 이후 민생 관련 품목도 직접 제재 대상이 되어 2017년 하반기부터 북한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 북중무역은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중이며, 수출입 품목 또한 경제제재 대상 상품의 교역규모 순위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대북제재가 대체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자력갱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대외관계 개선 및 경험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첫째, 기업화 협동농장 개혁, 둘째, 과학기술 발전 강조, 셋째, 자립경제 강조 등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중앙은행의 현대화·정보화와 상업은행을 통한 주민예금 확대 및 능동적인 신용창조 기능 수행을 강조하였고, 재정부문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산업부문에서는 전력 증산, 개인축산 장려, 지방공업 활성화,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초로 북한 방문 및 8년만의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적 국가들의 지지 도출 및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제재 범위 내에서의

경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결과 2019년 북한은 첨단기술의 상용화와 각 기관들의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육·의료·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공업 부문에서는 제품 종류·산출량 증가, 품질 향상, 지방공업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관광 부문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19년 봄 심각한 기뎀으로 인해 식량 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 증가로 식량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대규모 무역 감소와 무역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지원과 국산화를 통한 외화 절약으로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2019년 북한경제 평가를 토대로 2020년 북한경제를 예상해 보면,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경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제재완화가 더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제재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업·협동농장·금융부문 개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19년 제기된 수자화(디지털화)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혁과 과학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IT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기념비적 사업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외관계를 한층 공고히 구축하여 대내외적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 1. 머리말

집단은 생존과 번영을 꾀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대북제재 하에서 나름의 자원배분을 통해 체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2019년 북한경제 평가와 내년도 전망을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는 주로 유엔의 제재결의와 그것이 관철되고 있는 북중무역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둘째,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했는가? 이를 화폐(금융·재정)와 실물(산업)의 범주로 나누어 답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정책 실행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는 올 한 해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잘 드러내는 부문인, 과학기술, 산업(제조와 서비스) 및 물가를 중심으로 답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내년 북한경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북제재와 북중무역 변화

###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2019년 북한경제 평가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간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였다. 과거에는 대량살상 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부문만을 제재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민생 관련 품목들도 직접 제재 대상이 되었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시점이 2017년 하반기였다.<sup>1)</sup> 이 시기부터 제재 품목은 대폭 확대되고, 북한 노동자의 파견과 경험도 금지되기에 이른다.

---

1) 물론 2016년에 결의안 2270(2016.3.2), 2321호(2016.11.2)들이 있지만, 2017년 취해진 조치들이 이들을 포괄·강화하고 있어, 2017년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표 1 UN의 2017년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2017.8.5)	결의안 2375호(2017.9.11)	결의안 2397호(2017.12.22)
<u>북한산 수입 금지</u> •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u>북한산 수입 금지</u> •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 등	<u>북한산 수입 금지</u> • 북한산 기계류, 전기기기, 식료 농산품 등
<u>대북수출 금지</u>	<u>대북수출 금지</u> • 정제유 연 200만 배럴 제한 • 원유 동결(연 400만 배럴)	<u>대북수출 금지</u> • 원유 민생용 국한 (연 400만 배럴) • 정제유 민생용 국한 (연 50만 배럴) •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금속 등 수출 금지
<u>해외노동자 파견/경협 금지</u> • 해외파견 노동자 동결 • 대북합작 신규/확대 금지	<u>해외노동자 파견/경협 금지</u> • 해외파견 노동자 비자 갱신/신규 금지 • 대북합작 설립/유지/운영 금지, 기존 합작사 120일 내 폐쇄	<u>해외노동자 파견/경협 금지</u> • 24개월 내 철수 • 어획권(조업권) 구입금지

자료 : 필자 작성

## 2. 북중무역의 변화

### 1) 수출입 규모의 변화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했는데, 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88%, 수입은 33% 감소했다. 올해 들어 2019년 8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은 1.4억 달러, 수입은 1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대중국 수출은 12.7%, 수입은 15.9% 증가했다.

● 표 2 북한의 대중국 무역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수출	2,464	2,484	2,914	2,841	2,484	2,634	1,650	195	136
수입	3,165	3,257	3,633	4,023	3,226	3,422	3,608	2,528	1,572
무역수지	-701	-773	-719	-1,182	-742	-788	-1,958	-2,333	-1,436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출입 규모가 2018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대북제재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수출품목의 변화

2019년 8월 HS code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품목의 순위를 보면, 시계(HS 91), 철강(72), 조제우모 인조제품(67), 광/슬랙/회(2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과거 주요 수출품목<sup>2)</sup>인 무연탄(27), 의류(62), 어패류(03), 과실견과류(08) 등의 수출이 중단된 결과이다.

2) <표 3>의 음영부분.

표 3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순위

단위 : 천 달러

순위	제재 본격화 이후				제재 본격화 이전			
	HS code	품명	2018년	2019.8	HS code	품명	2016년	2017년
1	91	시계	31,347	34,108	62	의류 (편물제 제외)	611,500	496,741
2	72	철강	31,902	21,582	27	광물성연료 (무연탄)	1,187,115	412,722
3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24,176	20,944	26	광, 슬랙, 회	225,351	187,493
4	26	광, 슬랙, 회	25,314	14,479	03	어패류	190,094	162,822
5	90	정밀기계	9,962	10,107	08	과실, 견과류	50,833	78,893
6	27	광물성연료	11,392	7,684	61	의류(편물제)	111,872	65,254
7	95	완구류	5,134	6,274	72	철강	44,047	59,346
8	64	신발	4,847	4,892	25	토석류, 소금	34,789	43,614
9	70	유리	6,050	4,396	85	전기기기 (TV, VTR)	34,475	27,589
10	28	무기화합물	3,224	2,253	44	목재, 목탄	19,168	13,921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그러나 의류 임가공 원료인 인조필라멘트의 수입이 제재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2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sup>3)</sup>, 의류(61, 62) 수출은 밀수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자가 북중 접경지역 답사 과정에서 대북 임가공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패류의 수출 역시 제재 본격화 이후 조업권 판매(UN결의안

3) &lt;표 4&gt; 참조.

2397호 위반), 밀수(해상 직거래)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수입품목의 변화

2019년 8월 HS code 기준으로 수입 순위를 보면, 플라스틱과 그 제품(39), 인조필라멘트섬유(54), 동식물성 유지(15), 시계(91), 담배(24), 편물(60), 밀가루(11), 곡물(10) 등의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과거 주요 수입품목<sup>4)</sup>인 전기기기(85), 보일러 및 기계류(84), 일반차량(87), 철강(72) 등의 수입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표 4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순위

단위 : 천달러

순 위	제재 본격화 이후				제재 본격화 이전			
	HS code	품명	2018년	2019.8	HS code	품명	2016년	2017년
1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21,772	166,050	85	전기기기 (TV, VTR)	315,479	338,133
2	54	인조 필라멘트	138,241	118,285	84	보일러 및 기계류	268,607	267,599
3	15	동식물성 유지	155,672	87,78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04,533	231,388
4	91	시계	46,398	57,453	54	인조필라멘트	187,042	218,834
5	24	담배	69,645	52,560	87	일반차량	254,802	202,422
6	60	편물	80,547	51,565	15	동식물성 유지	99,498	121,549
7	11	밀가루	65,851	50,283	61	의류	134,823	117,119

4) <표 4>의 음영부분.

8	10	곡물	25,771	49,587	03	어패류	74,343	102,155
9	56	부직포	47,831	44,591	60	편물	84,494	101,042
10	48	지와 판지	64,220	42,015	72	철강	115,288	85,189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편, 2014년부터 대중 원유수입이 중국 해관(세관) 통계상에 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년 최소 약 50만톤 수준의 원유가 수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추정하는 이유는 북한의 수송수단 운행 증가로 석유류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통계상으로 나타난 2019년 대중 수출입의 감소 및 수출입 품목의 변화는 대북제재가 대체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중 무연탄 수출과 전기기기, 기계류 및 일반 차량 등의 수입은 거의 중단된 데서 입증된다. 단,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의류의 밀수출, 조업권 판매 등이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중무역 감소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무역의존도(무역/GDP)의 변화를 보기로 하자.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박사의 북한 GDP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무역의존도 변화를 추정해 보면,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약 20%에서 약 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sup>6)</sup> 이를 구체적으로

5) 만약 매년 50만 톤의 수입을 가정하더라도, 원유 수입은 2014년 5억 달러, 2015년 2.8억 달러, 2016년 2.3억 달러, 2017년 2.8억 달러, 2018년 3.1억 달러로 사실상 품목별 수입액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된다.

6) 북한의 대중무역은 총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약 10% 수준이 된다. 한편 북한의 대외의존도를 UN의 북한 국민소득 추정치로 계산하면 그보다 2배 가까운 수치가 도출된다.

보면, 리기성 박사는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1,214달러, 국내총생산이 307억 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sup>7)</sup> 이를 근거로 대중국 무역의존도(대중무역/GDP)를 계산해보면,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17년 17%에서 2018년에는 약 9%로 축소되었다.

### Ⅲ. 2019년 북한의 경제정책

#### 1. 자력갱생 강화

##### 1) 기본방향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은 대체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 연설 및 정상 회담 등의 정치 이벤트 등을 통해 나타난다. 우선 2019년 신년사를 보면, 북한의 올해 경제정책은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경제개혁 적극 추진 및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자립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

7) 참고로 이러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1,214달러는 동 기간 캄보디아(1,297달러) 및 미얀마(1,251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은행의 추정치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UN의 추정치는 686달러로 한국은행 추정치의 절반 수준이다. 뉴스1, “북 사회과학원 직년에 3.7% 경제성장 주장”, 2018년 10월 14일.

첫째, ‘경제적공간’<sup>8)</sup>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개혁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sup>9)</sup> 즉 가격개혁, 금융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자금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인재와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합니다.” 한편 올해 북한은 ‘수자화(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과학기술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중요한 요구’라는 글<sup>10)</sup>에서 “과학기술중시기풍은 본질에 있어서 수자 중시이며 수자 중시에 과학기술중시 기풍 확립의 중요한 방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은 제재 국면에서 자력갱생을 강화하는

8) 북한에서 ‘경제적공간’은 크게 ① 사회주의 본성과 관련된 공간(계획공간), ② 과도적 특성과 관련된 공간(노동보수공간 : 생활비·상금·장려금 등의 분배법칙 적용, 가치공간 : 원가, 이윤, 가격 등의 가치법칙 적용)으로 구분된다. (럼병호,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의 리용”,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김정은이 경제적공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장 개혁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① 사회주의 본성과 관련된 공간(계획공간)을 기반으로 하되 ② 과도적 특성과 관련 공간(노동보수공간과 가치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 2019 김정은 신년사, 이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인용은 동일한 2019년 신년사에서 인용한 것임.

10) 2019년 11월 23일 게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촉진되게 된 계기는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 하노이)의 결렬이다. 동 회담이 결렬된 직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4.12)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중략)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대치 및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은 개혁의 지속 확대와 과학기술 역량 강화이다.

## 2) 부문별 정책

### 가) 금융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원조달의 주된 창구가 재정에서 금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유동자금 공급이 중단되고, 2002년 7.1조치 즈음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의 공급도 축소되면서, 금융이 재정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올해 제기된 금융부문의 과제를 보기로 한다. 우선,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안정적 통화 관리, 상업은행에 대한 통일적 지도 등과 함께,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 현대화·정보화 실현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은행과 은행, 은행과 기업소 사이 전자결제가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앙은행의 화폐 유통관리에 보다 현대적 기술수단을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둘째, 상업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일에 의한 통제수단으로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예산 자금의 지출과 그 리용, 대부와 대부금의 리용에 대한 통제와 무현금결제, 현금출납을 통한 통제를 비롯하여 회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를 진행한다”고 못박고 있다.<sup>12)</sup> 이를 전제로 상업은행이 대부 가능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화폐류통의 공고화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지불준비금 공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즉, 지불준비율을 지렛대로 하여, ‘신용창조’를 통해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신용창조’가 시장경제와 다른 점은 ① 대부의 대상이 기업에 국한(일반주민 배제), ② 현금대부가 아니라 무현금대부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중앙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 무현금거래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계좌상의 거래, 즉 자금의 카드결제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요약하면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업무의 현대화·정보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창조’를 통한 자금의 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힘을 더

11) 최영남, “중앙은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12) 남석준, “사회주의에서 상업은행자금의 구성과 그 특징”,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13) 김국명,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은행들의 지불준비금 설정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기울이라는 것이다. 신용창조가 주민예금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sup>14)</sup>, 자금조달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 예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재정<sup>15)</sup>

북한의 재정은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년도 예산집행과 금년도 예산편성이 발표되고 있다. 우선, 2018년 예산집행을 보면, 2018년 예산 수입계획은 2017년 대비 4.6% 증가했다. 예산지출계획은 △인민경제비에 지출 총액의 47.6%, △인민시책비에 36.4%, △국방비에 15.8%을 배분했다.<sup>16)</sup>

다음으로, 2019년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수입은 전년대비 3.7%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예산증가율은 2017년 이후 3% 대의 소폭의 증가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sup>17)</sup> △거래수입금은 4.1%, △국영기업이익금은

14) 참고로 은행이 방출할 수 있는 무현금방출량은  $D = \frac{C}{R}$  ( $D$ : 무현금방출량,  $C$ : 은행이 보유한 현금,  $R$ : 지불준비율)이다. 만약 은행이 1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불준비율이 20%라면, 5억원의 무현금 대부가 가능하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2019, pp. 47-61.) 그런데 은행의 보유현금  $C$ 는 은행에 들어온 예금 총액이 아니라, 이 가운데 기업체 현금 예금을 제외한 현금예금( $Q = \sum Q_{\text{예}} - \sum Q_{\text{기업}}$ )이다. 왜냐하면 기업체 현금 예금은 은행이 이용할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김국명,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은행들의 지불준비금 설정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15)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에서 논의된 2018년 예산집행결과와 2019년 예산 계획에 대한 발표 내용을 분석.

16) 참고로 예산지출은 인민경제비, 인민시책비, 국방비 등으로 구성되며, 인민경제비는 농업, 경공업, 선행(중공업) 부문, 과학기술, 기본건설, 산림 등에 대한 지출로 구성, 인민시책비는 교육, 보건, 사회보장, 체육, 문화 등에 대한 지출로 구성된다.

17) 3.1%(2017) → 3.2%(2018) → 3.7%(2019).

4.3% 증가하여 수입총액의 85.7%를 차지하게 된다.<sup>18)</sup>

예산지출은 2018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예산증가율은 2017년 이후 5% 대의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sup>19)</sup> △인민경제비는 전년대비 5.4% 늘려 지출총액의 47.8% 를 배분하고 △국방비에는 지출총액의 15.8%를 배분하고 있다. △인민경제비의 주요 부문별 지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기술부문 지출은 8.7%, 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등의 선행부문은 5.7%, 기본건설과 산림은 6.6%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up>20)</sup> 한편 인민시책비의 주요 부문별 지출은 교육부문 5.5%, 보건부문 5.8%, 체육부문 4.5%, 문화예술부문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재정부문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규모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수입은 연 3%대, 예산지출은 연 5%대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재정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과학 기술 관련 예산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셋째, 2018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

18) 그 외에 △협동단체이익금은 1.1%, △부동산사용료 0.3%, △사회보험료 0.2%,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0.5%, △경제무역역지대수입 1.6%, △기타 수입은 0.5% 증가하였다. 한편 예산 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9%를 차지했다.

19) 5.4%(2017) → 5.1%(2018) → 5.3%(2019).

20)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순천리비료공장, 양덕온천관광지구, 은포온실농장, 어랑천발전소,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등 중요대상 건설과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 추진 등.

집중'으로 전략노선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다) 산업

산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대체로 신년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올 한해 전력, 비료, 식량을 비롯한 인민소비품 증산 및 관광 분야의 대건설 사업 등을 강조하였다. 대체로 과거와 유사하지만 올해 특징을 추출해 보면, 첫째, 전력 증산을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올해 (중략)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중략)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 나가며 (후략).”

둘째,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집단이 아니라 개인 단위의 평가가 추진되고 부업 차원의 개인축산이 장려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신년사에서는 농장원이 농사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입부업 축산을 공식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중략)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공업부문에서 현대화, 국산화, 품질 제고 등을 강조하면서, 지방공업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제고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상의 건축 수준, 건설공법의 혁신, 마감재의 국산화 등을 강조하였다. “올해에도 (중략) 거창한 대건설 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합니다. (중략)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건설공법들을 계속 혁신하고 마감건축재의 국산화와 질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중략) 세멘트를 비롯한 건축재생산능력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2. 대외관계 개선 및 경험 확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우호적 국가들의 지지 도출 및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경험 확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1) 북중관계

올해 6월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6.21~22)하고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방북은 2013년 집권 이후 최초이며,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이래 14년만의 일이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김정은의 4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에 대한 답례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우의 과시와 새로운 북중관계 발전 협의를 위해 결정된 것이다.

시진핑의 방북 배경을 보면, 우선, 북미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변화한 데 기인한다. 즉 북미관계가 갑자기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은 기존의 ‘여건 조성 시 방북’이라는 기조를 버리고 ‘방북을 통한 여건 조성’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 방북 시기는 중국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북한도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수용한 것이다. 즉 향후 대북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관광 등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인 교류협력의 증대를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를 반영한 6월 북중 정상회담 결과, 북-중 관계는 ‘신혈맹’ 수준의 우호관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측은 “중조우의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sup>21)</sup> 중국의 대북정책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선 실질적인 관여와 협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1~4차 방중 때와 달리 중국은 비핵화 협상

21) 2019년 6월 21일 회동에서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건 상관없이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를 견결히 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견결히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녕을 이루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천명.

과정에 대한 적극 개입 의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결단 관련 안보와 경제발전 원조용의를 표명했고, 이와 함께 그동안 중국이 미루어왔던 양국 교류협력의 구체화 및 실천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수교 이후 외교, 민간교류, 경제교류(제재 범위 내), 안보교류 등 가장 광범한 양국 간 교류협력 영역 확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경제교류도 제재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북러관계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4.24~27)하고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의 북러 정상회담이자 8년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북핵문제와 북러관계였다. 북러관계를 보면,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양국간 정상회담 및 고위급 교류협력 확대, △양국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양국간 경협 강화 부문에 있어서 북한 측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러시아내 북한 노동력 송환 연기를 요청하자, 러시아 측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처하여 북러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2)</sup>

22) 푸틴은 러시아 내 북한노동력을 “열심히 일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고 규율을 잘 지킨다”며 그들의 지속체류 방향에서 해결방법 있음을 시사했다. (정상회담 결과 관련 푸틴 기자회견, 2019.4.25.)

## IV. 2019년 북한경제 평가

### 1. 과학기술

#### 1) 현황

북한에서 지식경제 추구는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단번도약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즉, 과학기술역량을 토대로 우선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여타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 수산물 등 1차 상품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교우위로는 미래 지속가능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식경제와 지식(기반) 산업 실체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현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북한이 가장 집중했던 첨단 기술은 AI(인공지능)이며, 다음으로 Robot이 뒤를 잇고 있다.

우선, AI 분야를 보면, 안면인식, 음성인식, 문자인식 등 AI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이들 기술들이 경제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평양국제공항에 AI 기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AI기반의 문서읽기 프로그램 개발, AI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sup>23)</sup> 한편 올해, Robot 전시회<sup>24)</sup>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그간 축적된 로봇개발 역량을 선보였다. 반면 대자료(Big Data), 구름계산(Cloud Computing) 등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보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AI, Robot 등의 첨단기술은 의료, 교육, 산업 및 금융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부문과 산업(스마트 기기 포함) 적용 사례가 많고, 금융/상거래, 의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금융/상거래를 예로 들면, 전자상거래 업체 만물상은 자체 전자기기를 생산하고, 전자결제와 운송체계를 통합한 전자상업망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향후 전자은행업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특징을 보면, AI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개발 기관/업체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고가의 전자기기의 국산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다.

23) <표 5> 참조.

24) 전국로봇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 표 5 2019년 북한의 첨단기술 개발 관련 보도

구분	주요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노동신문, 1.7)</li> <li>• 아이들의 다정한 벗이 될 &lt;소리연필&gt;(노동신문, 2.5)</li> <li>• 경상유치원, 전자교과서 '친한 동무' 전국 보급(메아리, 4.13)</li> <li>• 김일성종합대학, 화상회의체계 '락원' 전국 보급(조선중앙통신, 5.22)</li> <li>• 새 교수방법 창조를 위한 개발력량을 꾸려놓고(노동신문, 6.4)</li> <li>• 김책공대, AR 기반 낙하산 훈련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7.17)</li> <li>• 천명기술개발교류사, DB 기반 통합형학습지원시스템 천명 2.0 개발(메아리, 7.23).</li> <li>• 인민대학습당, (조선중앙통신, 8.24)</li> <li>• 김책공대, 선두마차, 기관차로 내세워주신 그 믿음 안고 달려온 보람찬 한해(노동신문, 9.28)</li> <li>• 김일성종합대학, AI 기반 문서 읽어주는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10.6)</li> </ul>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식건강관리기술(노동신문, 8.14)</li> <li>• 대영정보기술교류소, 건강관리프로그램 '경혈안마' 개발(메아리, 8.19)</li> <li>• 김일성종합대학,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폰 앱 개발(서광, 9.20)</li> </ul>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국제공항에 AI 기반 안면인식체계 도입(메아리, 1.25)</li> <li>• 과학기술자들의 정신력발동에 힘을 넣어(노동신문, 8.20)</li> <li>• 삼흥정보기술교류소, 3차원 길 안내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8.9).</li> <li>• 농업연구원, 드론으로 농작물생육상태평가방법 개발(메아리, 9.7)</li> <li>• 연풍상업정보기술사, 지문인식-안면인식 도어락 개발(메아리, 9.8)</li> <li>• 의의있는 정보기술들을 개발(노동신문, 9.21)</li> <li>• 전국로보트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개막(노동신문, 10.2)</li> </ul>
금융/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을 모으는 전자상업 홈페이지(노동신문, 1.26)</li> <li>• 전자상거래 만물상, 모바일 버전 개발(메아리, 1.26)</li> <li>• 만물상,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향후 전자은행업 모색(메아리, 2.14)</li> <li>• QR코드 확대 적용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노동신문, 1.13)</li> </ul>
Smart Ph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충전기능 '평양2425' 스마트폰 출시(서광, 4.8)</li> <li>•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 자체 OS 기반 '푸른하늘' 출시(메아리, 5.1)</li> <li>• 광야무역회사, 새 스마트폰 '길동무' 출시(메아리, 9.9)</li> </ul>
Smart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전자제품개발에 힘을 넣어(노동신문, 2.6)</li> <li>• 스마트TV '소나무' 광고(월간 『금수강산』, 2019년 2월호)</li> <li>• 흥정보기술무역회사, 음성인식 기능 탑재 스마트TV '소백수'를 개발(메아리, 7.20)</li> </ul>

자료 : 2019년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메아리 등을 참조하여 정리

우선, 2018년에는 안면인식, 음성인식, 기계번역 프로그램 등 AI 관련 연구개발 관련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AI기반의 문서읽기, AI기반의 건강관리, 안면인식 기반의 원격교육, AI 기반의 Smart Phone과 Smart TV 등 교육, 보건, 산업,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전시회, 축전 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대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 기업소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올해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의 ‘푸른하늘’, 광야무역회사의 ‘길동무’ 등 2개의 브랜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아리랑’, ‘평양’, ‘진달래’ 등 기존 3개의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있다. 스마트 TV의 경우, ‘소나무’에 이어 음성인식 기능 탑재 스마트TV ‘소백수’를 개발·출시했다.<sup>25)</sup>

## 2) 의미와 시사점

올해 북한은 정보화·현대화라는 추상적인 용어 대신 ‘수자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경제로의 전환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의 ‘수자화’는 디지털화를 의미하며, 지식경제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에 근거한 경제를 지칭한다. 북한이 ‘수자화’를 강조하는 것은 문서, 그림, 영상, 소리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Digitization을 포함하여, 프로세스, 서비스 및 물리적 제품 등의 Digitalization에 적극

25) 참고로 2018년에는 ‘락원’, ‘푸른하늘’, ‘보통강’ 등 3개 브랜드의 LED TV, 곡면 TV 등이 해외 수출품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sup>26)</sup>

북한의 수자화와 지식경제로의 전환은 아세안 개도국들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모색을 고려할 때, 결코 빠른 전환은 아니다.<sup>27)</sup> 그리고 현재 북한의 수자화와 지식경제는 우리의 디지털화 및 지식경제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ICBM 등의 무기 개발 및 과학기술 중시의 교육과정에 더해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시스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은 제재국면에서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여타 저개발국들에 비해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6) 디지털화는 넓게는 Digitization, Digitalization 및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문서, 그림, 영상, 소리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1980년대 말에 시작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예 : 자료교환 공유의 온라인화), 이어 등장한 서비스의 디지털화(예 : 중개/컨설팅/교육/상거래의 온라인화),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화(예 : 전자책, 음악/영화 다운로드), 디지털상품의 거래(예 : 백신 SW, 음악/영화 스트리밍)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결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7) 캄보디아의 경우, 2014년 'ICT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3대 과제로 ①연계성(connectivity), ②역량(capability), ③전자서비스(e-service)를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의제화되어 글로벌 핫 이슈로 부상하자마자, 그해 6월 아세안 세계경제포럼은 아세안의 경쟁력 확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 2. 산업

### 1) 경공업

#### 가) 현황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2019년 북한의 경공업 현황을 전시회, 전람회 등에 출시된 경공업 생산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소, 연구기관, 군 기관 등 다양한 생산단위들이 전시회, 전람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다.<sup>28)</sup> 그런데 최근 전시회, 전람회, 축전 등은 단순히 신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질을 평가받고 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홍보와 치열한 판매경쟁의 광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혹은 기업소들을 지명함으로써, 참가자들 간 경쟁을 유발하고, 기술혁신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출시되는 경공업 신제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제품은 사탕/과자, 신발 등의 인민소비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국산품들로서, 각 단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sup>29)</sup>

28) 참고로 최근에는 가정주부, 노동자 및 농민 등 개인의 출품도 허용하고, 특허권도 허용하고 있다.

29) <참고> 2019년 경공업 제품 전시회/전람회 사례 참조.

## 나) 의미와 시사점

최근 출시된 경공업 제품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첫째, 2013년 이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가 적어도 인민소비품의 부문에서는 비약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쟁의 심화로 품질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다품종 소량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신발전시회 2018’ 관련 보도에서 경쟁과 품질(先質後量),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 강조하는 북한의 상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sup>30)</sup>

셋째, 경공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지방공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북한 ‘전국 신발전시회 2018’의 경우, 《매봉산》, 《삼천리》, 《날개》, 《천리》 등의 상표가 인기를 끌었으며, 신의주구두공장을 비롯하여, 류원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서천해동공장, 라선삼룡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강서신발공장, 안주신발공장 제품들이 호평받았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들 공장들의 상당수가 지방공장이다.

## 2) 관광

### 가) 현황

관광산업은 제재 하에서 핵심적인 외화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올해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관광지구, 양덕온천관광지구

---

30) 노동신문, “엄정하고 공개적인 경쟁마당, 원칙은 선질후량”, 2018년 10월 28일.

등의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6 주요 관광단지 건설 개요

관광단지	추진 경과 <sup>주)</sup>
삼지연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2016년 11월 삼지연군 일대를 현지시찰 하면서 3~4년내 '삼지연 꾸리기'사업 지시, 2017년 말부터 공사 시작</li> <li>• 김정은 현지시찰 2018년 7, 8, 10월, 2019년 4, 10월 등 총 5회</li> <li>• 2020년 10월 10일(노동당 창건 75주년) 완공 예정</li> </ul>
원산-갈마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도록 지시</li> <li>• 김정은 현지시찰 2018년 5, 8, 10월, 2019년 4, 7월 등 총 5회</li> <li>• 2020년 4월 15일(태양절) 완공 예정</li> </ul>
양덕온천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현지시찰 2018년 8, 11월, 2019년 4, 8월 등 총 4회</li> <li>• 2019년 12월 완공 및 운영 예정</li> </ul>

주 : 2019년 10월 현재 기준

자료 : 필자 작성

이들 관광지구는 '현 시대를 대표할 최상의 건설'을 목표<sup>31)</sup>로, 목표 시점에 완공할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 차원의 건설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 주요 지도자들의 현지 시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1) 김정은 2019년 신년사.

표 7 2019년 주요 관광단지 현지시찰 현황

구분	원산-갈마 지구	삼지연 지구	양덕온천 지구
김정은의 현지지도	2회(4월, 7월)	2회(4월, 10월)	2회(4월, 8월)
최고위층의 현지료해	1회(박봉주, 8월)	1회(김재룡, 8월)	2회(최룡해 5월, 김재룡 7월)

자료 : 노동신문

둘째, 군이 주도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2)</sup> 한편 삼지연 지구의 사례를 보면, 216사단이 건설지휘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백두산영웅청년여단, 삼지연철길건설여단, 6.18건설여단 등 지휘관들의 지휘 하에 군인 건설자들과 전국적 차원에서 파견된 민간 돌격대원들이 건설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건설 현장에서 전투속보판/경쟁도표판, 경쟁순위 발표 및 기능공경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전국의 기관·기업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대비하여 보도함으로써 참여 및 지원의 경쟁도 유발하고 있다.

### 나) 의미와 시사점

우선, 이들 관광단지 건설사업의 종료 시점이 대부분 2020년임을

32) 건군절 71주년 기념 인민무력성 방문 연설, 노동신문, 2019년 2월 9일.

고려하면,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수행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제재국면에서 전국의 기관, 기업소, 학생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단기간에 ‘현 시대 최상의 건축물’을 완공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제공하고 주민결집 강화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년 이후 관광사업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관광사업을 통해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고갈 리스크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건설자재의 부족, 인프라 건설 미흡 등으로 인해 단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에 따른 건설자재 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숙박시설 확충에 비해, 운송, 통신 및 금융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내장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경우 7~8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변 금강산 등 사계절 관광과 연계되지 않으면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김정은의 금강산 현지지도의 발언도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식량가격과 환율

#### 1) 식량가격

##### 가) 현황

2019년 봄 강수량은 2018년에 이어 과거 동 기간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가뭄이 매우 심각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적 평균 강수량은 56.3mm로 평년의 39.6%였다. 이것은 1917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서는 제일 적은 것”이라면서,<sup>33)</sup> 노동신문은 5월 중순~6월 중순까지 가뭄 피해의 심각성과 대안을 집중 보도했다.<sup>34)</sup> 한편 세계식량기구(WFP)도 2018/19년 식량생산량은 2008년 이후 최저인 490만 톤으로,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1,010만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급한 식량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극심했던 봄 가뭄은 식량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과 옥수수의 시장가격은 2019년 7월 쌀 5,000원/kg, 옥수수 1,600원/kg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33) 노동신문, “최근 가뭄상황과 그 극복에서 나서는 문제”, 2019년 5월 17일.

34) 노동신문, “모내기철이 왔다.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자”, 2019년 5월 19일, “물은 곧 쌀, 쌀은 곧 사회주의”, 2019년 5월 30일 등.

## 그림 1 쌀, 옥수수의 시장가격

(단위 : 북한원)



자료 : Daily NK

### 나) 식량가격 안정세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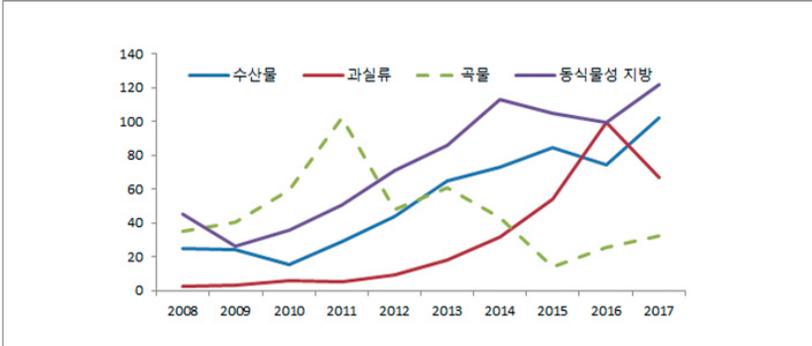
2019년 이전 북한의 식량가격 안정은 대북제재에 따른 식량수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와 농업개혁 등에 따른 공급의 증가/다변화의 결과라 판단된다.

우선, 소득증가로 북한주민의 소비성향이 변화했다. 탈북자들은 최근 소비성향 변화를 “옥수수보다는 쌀, 쌀보다는 고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식료품 수입 현황에서 입증되고 있다. 즉 곡물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과일, 수산물 및 동물성 지방 등의 수입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최근 밀가루 국수 등 대체 식품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북한주민의 필요 곡물소요량은 WFP 2018년 추정치 500g/1일<sup>35)</sup>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5) WFP가 제시한 2018년 북한의 필요 곡물 소요량은 575만톤, 이는 식량소요량 약 500g/1일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인구 2,500만명의 소비용 456만톤, 그 외 식료품, 사료 생산 등을 포함.

● 그림 2 대중국 식료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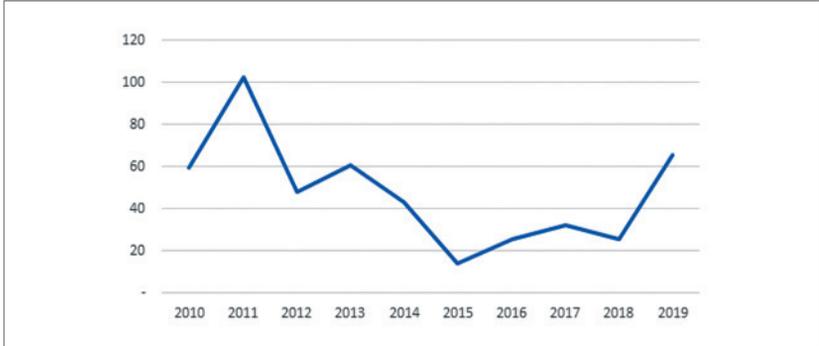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KITANET)

둘째, 농업개혁으로 농민들의 인센티브 증대 및 개인 축산이 가능해지면서, 먹거리의 공급이 과거보다 풍부해졌다. 개별 포전을 담당한 농민이 ‘생산계획’ 이상을 생산한 것은 개별 농민의 소득이 된다. 또한 현재 농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퇴비 생산과 육류 수요 해결을 위해 개인의 축산부업이 장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왔던 소를 비롯한 모든 집짐승의 개인 축산이 가능해졌다.

한편, 2019년 봄가뭄이 극심했음에도 연중 식량가격이 안정된 것은 앞의 두 가지 요인 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중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봄가뭄이 심각해진 5월부터 식량(대부분 쌀)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019년 9월 현재 수입액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4% 증가했다.

### 그림 3 대중국 식량수입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9년은 8월말 기준

자료 : 무역협회(KITA.NET)

#### 다) 의미와 시사점

최근까지 북한의 식량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은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와 농업개혁 등에 따른 공급의 증가/다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식량가격의 안정은 대중국 식량수입 확대가 크게 기여했다. 기상이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야 했다. 유니세프의 종합지표조사 등을 고려할 때<sup>36)</sup>,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와 같은 심각한 식량문제로부터

36)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벗어나 있음은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북한의 영양상태 변화, 최근 북한의 산림복원 정책 추진 등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우선, 유니세프의 종합지표조사(MICS :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에 따르면, 1998~2017년 기간동안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식량원조가 급감한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영양상태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김슬기,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7월호, 2018.7) 또한 최근 북한의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 추진으로 땀겨발이 감소추세에 있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이 22만ha가량 감소(2008년 284만ha → 2018년 262만ha)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2019)

벗어났지만, 연이은 기상이변을 극복할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문제는 기상이변의 지속성 여부이다. 올해 하반기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이상기후현상이 몰고올 파국적 후과’ 등 이상기후를 다루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 세계의 기상이변을 다루고 있지만, 자신들의 불안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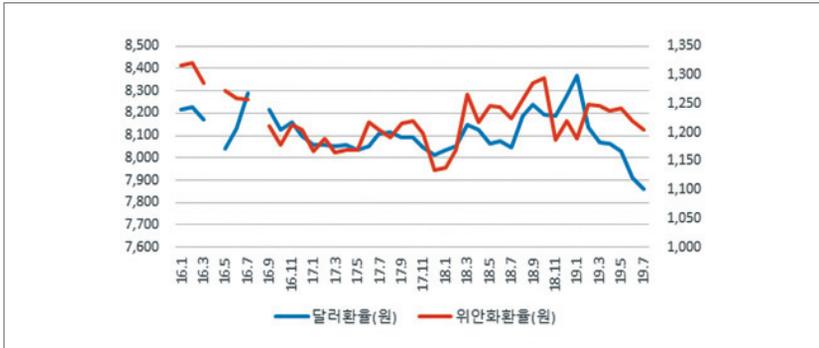
## 2) 환율

### 가) 현황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전년도에 이어 크게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7월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7,800원/\$, 위안화 환율을 1,200원/¥으로 2013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 그림 4 달러 및 위안화 환율

(단위 : 북한원)



자료 : Daily NK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 외화 지출에 비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외화 보유고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외화공급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그림에도 최근까지 북한의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나) 환율 안정세의 원인

최근까지 북한의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외화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외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균형 혹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무역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무역외수지<sup>37)</sup> 및 킱백<sup>38)</sup> 등 음성적 무역 관행을 통한 외화획득을 포함하면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예상만큼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39)</sup>

문제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된다면 무역적자가 과거 10억 달러 내외 수준에서 20억 달러 내외 수준으로 확대되는데, 추가적인 외화 확보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외화가 고갈되고 그에 따라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북한은 추가적인 외화 확보 및 외환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대외 및 대내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적으로 북중관계를 ‘신혈맹’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확보, 관광 확대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선, 밀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2017년 가을부터 본격화되면서 밀수가 증대하고

37) 무역외수지: 서비스수지(관광소득, 입어로 등), 이전소득수지(해외송금 등), 본원소득수지(해외 파견 노동자/해외식당)

38) Kickback, 뇌물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매출(수출)의 환급금액.

39) 기존의 북한 외화보유고 추정에 따르면, 25억~58억 달러(2018년 말 기준) + 킱백/리베이트 100억 달러가 된다.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22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4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북한 외화보유액은 25억~58억 달러로 2020년 말에는 북한 외화보유액은 고갈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은 늦어도 2020년 말까지 미국과 비핵화-체제보장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상품수입을 대폭 줄이면서 버티기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임수호,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17-20호, 2018.1에 따르면, 여기에 2000년 이후 킱백과 리베이트 100억 달러를 추가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 기간 버티기가 가능하나, 시장 반응은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추정들에 따르면, 최소한 2019년까지는 외화가 고갈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2020년 이후의 상황이다.

있다.<sup>40)</sup> 둘째,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대북제재로 방북 중국인이 2016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2018년 6월 북중정상회담 이후 2017년 대비 50% 증가했다.<sup>41)</sup> 셋째, 파견노동자 비자 발급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되는 등 노동자 파견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산화를 통한 외화 절약과 외화흡수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 추진 및 자금채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대외지불 수단으로서, 압록강변을 중심으로 자금채취가 확대되고 있다.

40) 일례로, 2018년 이후에도 의류 임가공의 원자재가 되고 있는 인조필라멘트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의 대중국 의류 수출이 밀수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인조필라멘트 수입이 대북제재 직전에 연간 2억 달러 내외였고 의류(HS code 62)수출이 5~6억 달러였다. 그런데 인조필라멘트 수입이 2018년 1.4억 달러, 2019.8월까지 1.2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연간 최소 약 4억 달러 상당의 의류가 밀수출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1) 조선관광총국에 의하면 2018년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평균 300달러를 소비할 경우, 관광수입 총액은 0.6억 달러에 달한다.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인원수는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우 중국 관광객으로부터의 관광수입 총액은 0.9억 달러로, 2018년 대중 수출액 1.95억 달러의 약 1/2에 해당한다.

## V. 2020년 북한경제 전망

북한은 대북제재로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장기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력갱생은 과거 사회주의에서의 자력갱생과 달리, 개혁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생산현장뿐 아니라 교육 및 건설 현장 등에서도 경쟁을 일상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브랜드경쟁이다. 올해도 스마트폰, TV 등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여 기존 브랜드들과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예금·대부를 통해 자금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더 나아가 경제일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수자화'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AI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 2019년은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상용화가 진전되면서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고가의 전자기기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교육,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공업 제품의 종류와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재의 국산화 진척, 지방공업의 활성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관광은 경제제재 하에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주된 수단으로서, 2019년중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2020년부터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신혈맹’ 수준의 우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교 이후 외교, 민간교류, 경제교류(제재 범위 내), 안보교류 등 광범한 양국 간 교류협력 영역 확대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초의 북러 정상회담이자 8년만의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러 관계 강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내부 개혁의 진전과 대외관계 개선에 힘입어 2019년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적자폭이 크게 늘었음에도 식량가격과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대외관계 개선을 전제로 식량수입 확대를 통해 식량사정을 개선하고, 밀수출, 관광수입 등의 확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대북제재를 견뎌내는 정도의 제한적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SOC, 중공업 등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부문의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 부분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기상이변이 지속되거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 식량가격과 환율도 계속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상 2019년 북한경제 평가를 토대로 2020년 북한경제를 예상해 보면, 내년의 북한경제는 무엇보다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정책 기조는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관계 개선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제재완화는 더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의 정책 기조인 자력갱생 강화와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계획 달성을 위해 내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매우 긴장된 한해가 될 것이다.

자력갱생을 뒷받침하는 개혁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2020년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기업, 협동농장, 금융부문 등의 개혁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인센티브 개선과 함께 전시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근로자간·생산단위간 생산 경쟁을 촉발시키는 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부문을 예로 들면, 다수확농민 및 개인 부업·축산 등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제재 하에서도 물가가 안정되고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 본연의 기능, 즉 예금·대출·송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확충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제기된 수자화를 구체적으로 진척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려면 디지털이제이션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의 수량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을 수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경영과 경제통계 구축의 계기도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화의 두번째 단계이기도 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진할 것이다. 이미 AI 등의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로봇 개발을 포함해 프로세스, 서비스 및 물리적 제품 등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혁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IT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대도시 중심의 IT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충하는 한편 통신망의 업그레이드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 카드결제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 향후의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등에 따른 보안문제 해결, 외국인 관광객 통신편의 제공 등을 고려할 때 기존 3G에서 4G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외관계,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구축하려 노력할 것이다.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기념비적인 사업, 예컨대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정치·외교·경제적 영향력을 어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김국명,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은행들의 지불준비금 설정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 김슬기,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7월호, 2018.7
- 남석준, “사회주의에서 상업은행자금의 구성과 그 특징”,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 럽병호,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의 리용”,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 이종석, 최은주, 이영훈, 『제재속의 북한경제』, 세종연구소, 2019
- 임수호,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17-20호, 2018.1
-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22월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4
- 최영남, “중앙은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2019.6
- 한국무역협회(KITA.NET)
- Daily NK
- 『노동신문』, 각호
- 『뉴스1』, 2018년 10월 14일
- 『조선중앙통신』, 각호

## 참고. 2019년 경공업 제품 전시회/전람회 사례<sup>42)</sup>

-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는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 가내 작업반 등의 생산자들이 자체의 지방원료와 폐자재 등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만든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

● 표 8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 제품 증가 추세

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류	1,500종	1,200종	7,700종	-	25,000종
제품 수	124,000점	130,000점	85,000점	287,300점	385,700점

자료 : 노동신문 해당연도 관련 보도에서 인용

-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는 전국의 주요 경공업생산 기업들이 참가하는 행사

● 표 9 ‘전국 인민소비품전시회’ 제품 증가 추세

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류	-	-	2,000여종	4,500여종
제품 수	33,000여점	100,000여점	80,000여점	150,000여점

자료 : 노동신문, 조선중앙TV 해당연도 관련 보도에서 인용

- ‘206가지 일용잡화’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206가지를 일컫는 것으로서 1976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목록이 완성됨

42) 이종석, 최은주, 이영훈, 『제재속의 북한경제』, 세종연구소, 2019, pp. 45-46.

● 표 10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전시회' 제품 증가 추세

구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류	350여종	350여종	300여종	400여종
제품 수	-	3,000여점	8,000여점	42,000여점

자료 : 노동신문, 조선중앙TV 해당연도 관련 보도에서 인용

